



최근 조선업계의 불황과 수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을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 회사 전 임원 및 팀장 50여명이 지난달 12~13일 이틀 동안 용당에 소재한 부산인력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의 워크숍은, 전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원가절감방안에 대한 방법 도출에 관한 것으로 진행됐다.

토요일 늦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워크숍의 열기는 첫날 계획된 일정 밤 9시를 한 시간 초과한 10시에 종료 되었다. 첫날 워크숍을 마치고 영업부 유우성 과장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워크숍에 참석해왔지만, 이 정도로 열정적인 워크숍은 처음"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워크숍 2일째인 1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시작해 12시까지 장장 5시간 동안 단 5분의 휴식도 없이 진행될 만큼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참석한 임원 및 팀장급의 원

가절감에 대한 방법도출, 부서간의 아이디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모두 만족시키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각 부서는 △예산 물량과 실행 물량의 차이 ΔSTOC 자재비에 대한 매각화 개념 부족 Δ포괄적으로 분석된 아이템 Δ 자재비 인상 가능성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VE 원가 계산 재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매달 7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원가절감 실적을 발표하기로 결정 되었으며, 또한, VE TFT를 구성해 좀 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2면에서 계속)

"현재의 위기와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원가절감의 방법을 도출해서, 지금 닥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금식 대표이사의 끝맺음으로 양일간의 워크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1년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갱신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 누릴 수 있게 돼...

우리 회사가 지난달 29일 부산시로부터 미래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키 위한 2011년 선도기업에 재선정되어 인증서를 갱신하게 되었다.

우리 회사는 해양산업·기계부품소재산업·관광산업·컨벤션산업·영상산업 등 총 10개의 전략사업 부문 가운데 기계부품소재 산업부문에 선정되었으며 이번 선정으로 중소기업 육성·우선자금 금리를 우대 지원 및 특허기술 양산화 지원,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성화고 취업지원 협약식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4일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취업지원 협약식'에 협약하고 지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울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자체 내 산업인력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행정기관이 참여하였다.

이번 협약식으로 교육 기간에서는 각종 교육과정을 기업에 맞춤형으로 운영, 학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지난달 26일, 가족초청간담회 실시 신입 부서원 가족 및 신혼 직원 가족들 초청해 “소통의 장” 마련



우리 회사는 지난달 26일 가족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번 입사한 신입 부서원 및 신혼 가족들을 초청해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한 가족처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직원 및 가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가족초청간담회는 부서원이 일하는 모습과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사무실 및 현장 순회 등을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 상호간의 이해를 통한 친밀감 증대와 회사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강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최금식 대표이사는 “회사와 부서원 가족들 간의 거리를 없애고, 직원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뜻 깊은 추억을 마련해주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최근 조선업계 불황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재무 기반과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족초청 간담회는 지난 간담회와 비교해 연령대와 구성원이 보다 다양해져 더욱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또한, 종전의 외부에서 식사를 가졌던 것과



달리 직원들의 실제 회사 생활을 간접 체험한다는 취지에서 식사 장소를 금번 신축한 회사 식당으로 옮겨 방문한 가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회사소개, 대표이사 인사말, 단체 사진 촬영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및 현장 순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옥승민 사원의 부모님은 “아들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작업환경을 보니 선보에 대한 믿음이 간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우리 회사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앞으로

가족 체육대회, 가족 마라톤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가족친화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이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복지시설 확충... 직원들 만족감, 소속감 증대 기대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



지난달 우리 회사 옥상 식당 및 휴게 시설의 리모델링이 이뤄졌다. 날로 치열해 지는 영업 환경과 조선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금식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이번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며, 완성 후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사는 시설이나 배치 등 여러 방면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원톱 서비스 형식으로 공간을 재배치했다. 즉, 배식공간-휴식공간-운동공간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통해 근접성과 실용성을 보다 극대화시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꾀하고자 했다. 이번 공사를 진행한 장호길 부장은 “회사가 어렵더라도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표이사님의 지가 관철된 것”이라며 “직원들이 쉬는 시간만이라도 마음 놓고 편히 쉴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평소 식사 시간에 휴게시설을 자주 애용한다는 신성인 과장은 “전과 비교해 식사 후에 탁구나 당구를 치면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동료 간의 대화시간도 늘어 친밀도가 높아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내는 한편 “소모품 추가 및 교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장호길 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배드민턴장 등의 다양한 운동시설 설치 및 휴게공간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전사 VE TFT 발대식 실시



우리 회사는 영업, 설계, 생산관리, 자재조달 등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제품별 원가절감을 위한 최적의 견적 실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품별 VE TFT를 구성하였으며, 지난달 15일 TFT 발대식이 상임고문 주관으로 진행됐다. (1면에서 이어짐)

총 9개 팀 66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제품별 VE TFT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에 1, 2차 성과발표가 진행됐

다. 1차 성과발표에서는 각 제품별 원가분석 및 현 수준 파악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으며 2차 성과발표에서는 원가절감방안가 능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TFT 발족을 통해 우리 회사는 최근 지속되는 조선 경기불황 속에서 안정적인 원가경쟁력 확보로 원가절감을 현실화 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6개월간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Life 추천여행지

벚꽃눈, 진해를 뒤덮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다가왔다. 봄의 기운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역시 뭉치뭉치 해도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추천여행지는 바로 벚꽃이 흠날리는 진해(창원시 진해구다). 지금부터 진해의 벚꽃명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자. (잡간! 역시 남는 건 사진뿐! 벚꽃 나들이에 카메라는 필수로 지참하는 것이 좋다.)

진해 바다가 한 눈에 “안민고개”

창원에서 진해로 넘어오는 관문인 안민고개의 5.6km에 이르는 벚꽃길은 벚꽃이 만개하면 마치 설원 속에 있는 듯한 착각에 들게 한다고 하니 이곳이야말로 진해 벚꽃놀이 구경에 안성맞춤이다. 이곳은 특히 드라마 ‘로망스’에서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에게 진해와 균항제를 열심히 설명하던 장소로 맑은 공기와 탁 트인 조망이 일품인 곳으로 진해해안과 진해시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다. 특히 온 시내가 분홍빛으로 물들어 아름답기 그지없다. 평소 차량통행이 거의 없어 산책로를 따라 걷는 이들도 제법 보인다. 혹시나 벚꽃이 다지고 난 이후에 가더라도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안민고개다. 왜냐하면 벚꽃이 지고 초록빛으로 뒤덮인 안민고개는 벚꽃길과는 또 다른 싱그러움을 내뿜기 때문이다. (주의 균항제 및 벚꽃 관람 기간에는 진해에서 창원으로 일방 통행제를 실시하고 있어 창원쪽 진입이 안됨)

만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경화역”

기차와 나뭇가 주는 풍경이 절묘한 경화역은 다른 벚꽃놀이 장소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한적하게 여유를 즐기며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경화역 나들이를 갈 때는 열차시간을 잘 맞춰 가면 또 하나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벚꽃 피는 시기 경화역은 사진작가들의

단골 출사장소가 됐다. 진해시내 어느 곳이 만발한 벚꽃을 감상하기에 충분하지만 경화역은 그 운치가 남다르다. 참고로 경화역 앞 도로는 혼잡할지도 모르니 경화역 뒤편 길에 주차를 하면 보다 여유롭게 경화역의 운치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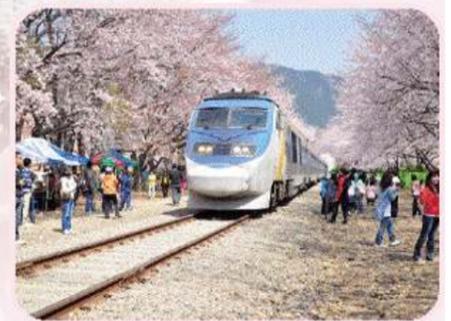
벚꽃의 물결 “여좌천”

여좌천은 벚꽃물결이 일렁이는 진해 최고의 벚꽃터널이다. 이를 사람들은 “설원 속에 있다”는 말로 대신한다. 드라마 로망스 촬영 이후 명실공히 진해 벚꽃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여행 후 여좌천에 반했다는 말이 많은 곳이다.

여좌천은 특히 만개했을 때 보다 낙화할 때가 더 아름답다고 한다. 바람에 흠날리는 벚꽃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낸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셔터를 누르기에 여념이 없다. 여좌천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유채꽃의 향연이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 개울가를 걸으면 노란 유채꽃이 분홍 벚꽃과 대비해 선명하게 빛을 낸다. 그야말로 여좌천은 색채의 향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좌천은 밤이 되면 그 운치가 더욱 장관이다. 가족과 연인들로 가득 찬 여

좌천의 벚꽃들은 조명을 받아 더욱 아름답다.

다만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이점만 유의한다면 친구와, 가족과, 연인과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 모두들 추억의 사진 한 장쯤은 남기길 추천한다.



Life 좋은 말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한 10계명

제1계 취미에 투자하라.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갖게 되면 대화도 늘고 서로 간의 이해도 깊어진다.

제2계 작은 성의를 투자하라.

로맨스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창조하는 것. 자주 같이 슈퍼에 가거나 식사 또는 다른 가사일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

제3계 서로 격려하라.

「당신 생각이 옳아요,」 「당신 치림이 어울려요,」라는 등 상대방을 북돋우는 말을 자주하자.

제4계 매일 한끼는 함께 식사하라.

부부가 마주앉아 정답게 식사를 하면 가족전체의 평화도 가꿔진다.

제5계 서로에게 편지를 써라.(e-mail 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을 글로 나타낸다는 건 말과는 또다른 흥분과 기쁨을 선사한다.

제6계 매월 한번 정도는 외식하라.

외식은 기분전환 뿐만 아니라 일상의 때론 지겨운 장보기/식사 준비/설거지 등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다.

제7계 가끔 같이 여행을 하라.

타지로의 여행은 여행 전날의 기대와 그 과정만으로도 서로의 애정을 깊게 하기에 충분하다.

제8계 서로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유분방하게 대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제9계 생활을 즐겨라.

욕심을 줄이고 작은 일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태도를 가지면 주어진 상황이 달라보이고 스트레스가 덜 쌓인다.

제10계 기념을 장식하라.

생일·결혼기념일 등을 챙겨라.

Inside SUNBO 우수 협력사 탐방



선박배관업계 최고를 꿈꾸는 (주)유경

월부터이나, 다른 협력사 못지 않게 상호 공조 관계가 두텁다.

유경이 가장 자랑하는 부분은 바로 직원 복지다. “공장이 도시에서 조금 외진 곳에 있어 조금이라도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김광환 사장은 “기숙사, 식당, 샤워실, 빨래방 등 시설면에서는 대기업 못지않게 제공하려 노력했다”며 자부했다. 직원들이 자신이 신경 쓴 복지시스템에 만족을 느낄 때 뿌듯함을 느낀다는 김광환 사장은 직원이 점점 많아질 때마다 함께 같이 먹고 살아갈 가족들이 느는 것 같아 행복복한 동시에 책임을 느낀다고.

또 최신식 장비와 최적의 작업조건은 유경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유경은 경쟁력에

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비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때문에 직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선보와 거래액은 유경 매출액의 2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40%까지 비중을 늘릴 것을 목표로 하는 유경은 선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애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유경은 선보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소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겠다는 신뢰를 심어주었다 평가했다.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바로 작업계획을 세우는 데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점이다. 김광환 사장은 “절대적인 작업공기



가 요구되는 만큼 보다 사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빨리 공지를 해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선박배관업계 최고를 목표로 꾸준한 사업확장을 준비하는 유경은 앞으로 선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Win-Win할 것을 기원했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모든 작업의 “꽃”계장, 제 손에 달려있습니다!



김종성 사원
다대 2공장

반복은 피로를 야기하는 독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약이기도

도 하다. 여기 꾸준한 반복을 통해 늘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는 이가 있다. 바로 다대2공장의 김종성 사원이다.

인터뷰 내내 씩스러운 듯 연신 미소를 짓던 그는 지난 2009년 군 제대 후 곧바로 우리 회사에 입사해 올해로 입사 2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는 현재 다대2공장에서 계장 작업을 도맡고 있는 26살 젊은 청년이다.

혼자 일하는 작업이라 자신에게 더 엄격해진다는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작업하려 노력한다고. 자신의 일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계장'은 모든 작업의 "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그가 일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

까? 그는 바로 작업결과에 대한 칭찬을 들었을 때라고 한다. "모양이라든지 기능에 항상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면서 "칭찬을 들으면 더 책임감이 생겨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항상 즐겁게 일하는 그에게도 힘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재나 소모품 등이 늦게 들어오거나 일부 부품이 없을 시에 본사까지 직접 가지러 가야할 때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본사에 들르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다. 그런 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작업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들었을 때 특히나 빛을 발한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긍하고 보다 더 작업에 집중해서 완벽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노력파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근무할 때 누구보다 충실하고 바쁘게 일하는 젊은이는 결국 큰 성과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명언은 언제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김종성 사원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꿈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늘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김효희 사원
영암공장

Q 이번호 선보가족 칭찬릴레이 주인공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다른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저보다 더 열심히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칭찬주자의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Q 입사 년도와 하시는 업무는?

입사는 2008년도 10월에 했는데 벌써 2년 반 정도 되었네요. 세월이 참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업무는 자재 품목의 물량을 확인하고 입고를 잡고 현장에 무리가 없도록 자재를 공급하고 그리고 자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정리정돈하고 있습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평소의 마음가짐이라면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책임을 다하자"입니다. 자재 공급하는 일을 하다보니 잘못된 자재를 현장에 배치하면 분명히 오작업이 생기거나 작업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책임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는 성격입니다.

Q 가족이나 동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요즘 나라 안팎으로 다들 힘들고 고단해도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힘든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시간도 빨리가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같이 합심해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선보인 화이팅! 사랑합니다^^

Q 다음 칭찬릴레이 주인공을 추천하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요?

칭찬받으실 분들은 많은데 한사람만 선택하려니 어렵네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생산관리부 송인환 계장님을 추천합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일

다대공장	황세연(4/18) 곽봉제(4/25) 최홍필(4/17), 안정빈(4/2), 전형남(4/3) 강혜민(4/5), 최진영(4/24), 엄익상(4/30) 김오석(4/12), 박문영(음3/22), 최재호(음3/24), 손정락(음3/8)
2공장	김우성(4/30), 최봉순(음3/23), 김종민(음3/8), 황종열(4/13), 강경일(4/13) 윤기현(음3/2), 지기환(음3/8)
3공장	김종석(4/21)
순해공업	지창대(음3/19)
구평공장	하경란(4/20) 김강진(4/15), 김연진(4/5), 임우택(4/24) 평창산업 전용선(4/18), 강현진(4/18) 서경프린트 이윤조(4/14), 김항석(4/3) 보성산업 류시현(4/2), 조해용(4/21)

입사기념일

다대공장	양수경(4/13) 이수원(4/28) 이현우(4/1), 백송모(4/1), 정창욱(4/19) 박종혁(4/2) 최우호(4/1) 임영삼(4/30), 이창연(4/2), 장기봉(4/18) 김문철(4/28)
고객지원	김기주(4/1), 정자문(4/19), 임인혁(4/1) 권두철(4/1)
1공장	정종교(4/1), 이추록(4/11), 백선우(4/7) 김수현(4/28), 강병기(4/1), 남영호(4/14) 조경선(4/1), 김우성(4/2), 김진삼(4/21) 강동주(4/19)
2공장	
3공장	
구평공장	조영화(4/2) 하경란(4/10) 김강진(4/26)
영도공장	성창훈(4/2) 김상철(4/7)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Run SUNBO Run **안정빈 과장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